

“난개발은 그만... 도시공원 함께 지켜요”

광주시 '도시공원 시민탐방' 발산공원 등 6개 공원 탐방 8월13일까지 진행...전화 접수



지난 2일 발산공원 탐방에 참여한 시민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협의회) 등이 실시하는 '도시공원 시민탐방'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생명의숲 국민운동은 지난 2일부터 공원 일몰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 앞산뒷산 산길 찾기 '도시공원 시민탐방'을 시작했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에 따라 중앙·일곡 등 10개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들 공원의 최대 30%를 개발해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골자다. '2018년 도시공원 시민탐방'은 도시에서 푸른 녹지와 휴식을 제공하며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탐방은 지난 2일 서구 농성동 발산공원을 시작으로 봉주공원, 월산공원, 화정공원, 운암산공원, 우산공원 등 오는 8월 13일까지 모두 6곳을 탐방한다. 특히 올해 시민 탐방은 시민들의 탐방은 물론 탐방 결과와 과정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연말 '광주 앞산뒷산 탐방 보고서'(가

침)를 발간할 예정이다.

2일 시민탐방에는 굽직한 장맛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의 시민이 발산공원을 찾았다. 발산공원은 서구 농성동과 양동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0만5194㎡다. 리기다소나무와 상수리나무 등이 식재돼 있으며 직박구리, 참새, 노랑턱멧새 등 8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날 탐방에는 김영선 호남대 조경학과 외래교수가 집장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발산공원은 기 개발면적 및 국공유지가 많은 공원 중 하나"라며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에서 지정해제되면 체육시설, 사우나 또는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까지 들어올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

다"고 지적했다.

참가자 김혜정씨는 "도시의 작은 녹지공간마저 눈앞의 이익으로 침식돼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시민탐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062-233-6501)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이 일하기 쉬운 '본촌산단' 만든다

지식산업센터 건립·통근버스 운행 등 정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친화형 산단' 선정 공모에서 광주 본촌 일반산업단지(이하 '본촌산단')가 최종 선정됐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는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을 고려해 노후산단을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 환경을 갖춘 산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로부터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토부로부터 도로·주차장 정비, 고용부로부터 기사사·통근버스 지원 등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최근 관계부처 TF팀을 구성, 공모에 참여한 16개 예비 대상지를

선정해 지난 19일 현장 실사와 제안 사항 검토 등을 거쳐 본촌산단 등 총 6개 산단을 선정할 바 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본촌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추진 의지와 지역균형발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일반산단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시는 산업부와 협의해 9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본촌산단을 중소기업 밀집형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로환경개선과 업종고도화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본촌산단은 준공한지 35년된 대표적인 노후산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최대 1억 지원...광주형 지역혁신모델 공모

26일까지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광주지역의 민간주도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원동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18년 광주형 지역혁신모델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광주시를 대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혁신모델 5개 내외에서 제안하면 된다. 접수자격은 연말까지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구현이 가능한 혁신모델과 구현 역량을

보유한 사회혁신형 기업이다. 개인(예비창업자)은 창·취업 지원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에 한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금 최대 1억원의 혁신활동 지원금,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 투자유치 프로그램 및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지원본부(062-364-6157)로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회적경제주간' 포럼·영화제 행사 다채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8년 광주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가 7일까지 광주 곳곳에서 열린다.

'2018년 광주 사회적경제주간'은 1일 사회적기업의 날과 7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며 '함께하는 사이, 사회적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4일에는 광주 사회적경제 주간의 시작

을 알리는 기념식과 기념포럼이 CMB광주방송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인과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시민이 함께 사회적가치 창출 및 실천을 격려하고 기념하는 자리다. 기념식 후에는 '함께하는 사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 하는 기념포럼이 이어진다. 5일부터 3일 동안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픈관 1층 101호에서는 시각·청

각장애인과 함께하는 '2018 사회적경제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열리고, 2일부터 13일까지는 사회적경제 현장으로 찾아가 음악회를 선물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진행된다. 그 외에도 주간행사 기간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2018년 광주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는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gjsec.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시 일자리정책과(613-3601) 또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531-6667)로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일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33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이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남대 경영대 최상준홀(2-202호)에서 열린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문화, 창조성, 도시발전: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등은 지금까지 32차례 행사를 진행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어 역할극·영화 보기...신나는 독서교실

광산구 도서관들 프로그램

광산구 5개 구립도서관이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이 가운데 운남도서관의 '영어와 떠나는 지구한바퀴'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영어 그림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어그림책을 통한 역할극까지 기획 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이야기꽃 도서관을 비롯해 장덕도서관, 운남도서관, 신가도서관, 첨단도서관 등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특별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독서교실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책임감과 다양한 독후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이야기꽃 도서관이 오는 21일-28일까지 '소리로 만나는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운남도서관은 오는 8월 6일-8일까지 '영어와 떠나는 지구한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장덕도서관은 8월 8일-10일까지 '영화로 만나는 어린이 인문학', 신가도서관은 8월 16

일-18일까지 '내마음의 스케치 BOOK', 첨단도서관은 8월 20일-22일까지 '꿀꺽 맛있는 과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이 가운데 운남도서관의 '영어와 떠나는 지구한바퀴'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영어 그림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어그림책을 통한 역할극까지 기획 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산구 도서관과 강미금 과장은 "여름 독서교실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해 책임감을 다양한 경험으로 연결하기 바란다"며 "구립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의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20까지 광산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수한 어린이들에게는 수료증을 주고 모범 어린이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과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회장 상을 수여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오늘 사업 설명회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8년 하반기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이하 평생학습)' 사업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

광주시 소재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하반기 평생학습 사업은 ▲광주

형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빛고를 시민대학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총 4개 분야가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억 2300만원으로 총 26개 내외 프로그램을 선정할 계획

이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진흥원에서 하반기에 처음 추진하는 '빛고를 시민대학 지원사업'은 지역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두 4개 대학 내외로 선정한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4일 오후 진흥원

(광산구 소촌동 시공무원교육원 4층) 대강의실에서 총 4개 분야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반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 공지사항을 참조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획연구실(600-5221-5)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